

제 1 교시

新 수능국어 문법과 방향성

이미 기존 시험에서 몇 차례나 보여준
평가원의 의도
문법 교육의 목표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기존 문법학습은
문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개념암기/적용’ 테스트
‘준법의식’ 테스트
‘문법조항 암기’ 테스트
정도의 수십년 전 통념을 지키는 수준이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 제 2의 개화기인 지금
문법 암기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어라는 영역의 특성상,
나름대로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전국의 65명이 아니면 극복이 안 된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특정 문제들에서는 아예 문법 암기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푸는게 편해’라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평가원의 강력한 일침.

바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드러난
평가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학생 : 선생님, 자기 소개서를 써 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헛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 봉사 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 도울 뿐이었는데 ㉢ 너 밖에 없다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 때 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선생님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학생 : 아, 그럼 [A] 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 ① ㉠의 ‘보다’, ㉢의 ‘밖에’
- ② ㉡의 ‘뿐’, ㉢의 ‘밖에’
- ③ ㉡의 ‘뿐’, ㉣의 ‘만큼’
- ④ ㉠의 ‘보다’, ㉡의 ‘뿐’, ㉣의 ‘만큼’
-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

다시 한 번 자신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뒤 뒤로 넘어갑니다.

1. 과연 **암기**력만으로 풀 수 있나요?
2. 한글 맞춤법 조항을 **암기/적용**하면 풀 수 있나요?
3.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이라는 개념 수준은 중3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의존명사와 조사에 대한 개념 적용으로 풀 수 있나요?
4. 조사와 의존명사의 예시가 무엇인지, 즉, ‘만큼’이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나요?

선생님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을 암기하는 것이 평가원 의도가 아니며,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평가원 문법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암기가 내용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학생 : 아, 그럼 [A] 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즉, 붙여 써야 하므로, 조사를 골라내야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로 보입니다. '조사'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리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뿐 아니라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봉사 **보다**는
- ㉡ 도울 **뿐**이었는데
- ㉢ 너 **밖**에
- ㉣ 때 **만큼**은

암기로는 **보다, 뿐, 밖, or 밖에, 만큼** 이 도대체 조사라고 암기하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조사/의존명사라고 암기해서 풀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풀이입니다.

만큼 : 의존명사, 조사

'만큼'은 의존명사 동시에 조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암기로** 그 품사가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을 하라? 구분이 되나요?

사실 이런 문항은 이미 이전에 출제되었는데, 국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 기존 방식에서의 한계 때문에,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뿐, 이미 만점자 65명 148명 수준(수학은 2500명)의 입시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떠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리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풀이과정1>

1. 문제읽기
2. 보기읽기
3. 개념/적용파악하기
4. 3의 과정으로 답이 안 보일 경우 최근 평가원 문법 킬러 유형 = 평가원 의도 파악하기(평가원의 문법 교육 목표 : 논리적 사고)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풀이과정2>

3항의 사고에 따라서, 위 문제는 의존명사와 조사의 구분 이라는 개념이 보임 문제는 암기력은 평가원의 교육 목표가 아님 '기초적인 문법 지식 기반 논리적 사고'

따라서, 미시적인 단어의 용례 수준이 아닌, 수학에서 단원 별로 개념 학습 하듯이 국어에서도 개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결국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품사'

Q1. 품사에 대한 정의?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풀이과정3〉

Q1. 품사에 대한 정의?

단어를 형태/기능/의미에 따라 나눈 것.
 끝. 정답 나옴.

봉사 보다 는	도울 뿐 이었는데	너 밖에	때 만큼 은
명사 + ___	수식언/용언+ ___	명사 + ___	명사 + ___
	이것만 기능 다름!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정답〉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
㉠만 기능이 다름! 따라서 5번 정답!

여기서 아! 하고 이해가 가면서 납득이 되는 학생들은 참 다행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못한 이런 설명과 사고 과정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사실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학습해서 지금의 익숙한 4~6등급이 나왔다면 그대로 익숙하게 공부한다면? 결과도 4~6등급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가원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견해와 직접 집필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드리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문적인 국어 공부를 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뀌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문제는 이 한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점자 148명이 나와서 국어 만점 - 수학 가형 4등급 맞고도 의대갔던 시험 시절의 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2019년도 수능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약속 날짜를 너무 **발게** 잡았다.
 ㉡ 서로 **발게**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씩** 가깝게.
 ¶ ㉡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발다형

1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

2 길이가 매우 짧다.
 ¶ 새로 산 바지가 **발아** 발목이 다 보인다.
 3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발아서** 큰일이야.
 :

- | | | | |
|---------------|---|---|---|
| | ㉠ | ㉡ | ㉢ |
| ① 발게 부 | ㉠ | ㉡ | ㉢ |
| ② 발게 부 | ㉡ | ㉢ | ㉠ |
| ③ 발게 부 | ㉡ | ㉢ | ㉠ |
| ④ 바투 부 | ㉢ | ㉠ | ㉡ |
| ⑤ 바투 부 | ㉢ | ㉡ | ㉠ |

Q1. 단어 뜻으로만 푼 경우, 절대 그렇게 풀리지 않으니 다시 확인해주시고, 발게/바투의 품사를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작성 후 넘어가주세요

<잘못된 풀이과정-의미로 접근>

단어 뜻만으로는 절대 안 풀리는 것이
 ㉞에 들어갈 내용은 대상/물체 사이이니
 ㉠받게, ㉡바투 다 되고

 ㉢에 들어갈 내용은 시간/공간 사이이니
 ㉠받게, ㉡바투 다 되죠

<잘못된 풀이과정-어미로 접근>

그렇다면
 받게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해야하는데
 시중 해설을 보면
 -게가 붙으면 형용사
 -투는 없으니 부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미, 조사, 접사 다 암기해야합니다.
 어미, 조사, 접사 도대체 어디 까지 암기해야하며,
 여러분 솔직히 암기하고 계신가요?

 시험범위로 지정도 안 된 내용을
 암기해서 접근하겠다는 발상은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발상을 옹호하는 것 역시
 이성적 판단인지
 감정적 판단인지
 합리적 판단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이어지는 내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 문제는 평가원 사고대로 따라가면, 평이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15번 풀이과정1〉

1. 문제읽기
2. 보기읽기
3. 개념/적용파악하기
4. 3의 과정으로 답이 안 보일 경우 최근 평가원 문법 킬러 유형 = 평가원 의도 파악하기(평가원의 문법 교육 목표 : 논리적 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 문법의 교육 목표 수능 문법의 출제 의도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20~30년 전 대학에서 배울 당시의 문법 교육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출제원칙을 잡으시는 교수님들과 평가원 연구 교수님의 관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봅니다.

학교 문법의 교육 목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학교 문법의 교육 목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우선, 우리는 ‘그’ 기초적인 문법지식의 범위, 지식 습득 방법, 지식이 머릿 속에 존재하는 형태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탐구학습을 통해
 탐구학습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탐구학습입니다.
 지금은 못 배워서 못 할 뿐, 이제는 배워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다시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평가원 문항설계. 논리적 풀이 과정.

밭다 : 형용사 → 밧게 바투 (활용 또는 파생)

논리적 사고 근거 1. 형태 변화

논리적 사고 근거 2. 선지 보기 근거, 품사 변화

결론 : 형태 변화. 그러나 각각 품사 변화가 있고 없다

기초적 문법 지식 바탕

+논리적 사고 근거 3. 형태 변화 + 품사 변화 : 파생

+논리적 사고 근거 4. 형태 변화 + 품사 유지 : 굴절(활용)

아!

하나는 굴절/활용 품사 유지

하나는 파생 품사 변화

그렇다면?

같은 단어와 의미인 굴절/활용의 형태 변화보다

다른 단어가 된 파생의 형태 변화가 크겠구나!

결론은?

형태가 변하며 다른 단어가 된 바투 : 부사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같은 단어인 밧게 : 형용사

해설 이해가 안 되면 2~3번 곱씹어 다시 시간 두고 고민하세요.

결국, 밧게 형용사, 바투 부사. 따라서 4~5선지 둘 중 하나

추가로

단어 뜻 적용하면

㉠ 다른 단어, 다른 품사

㉢에 들어갈 내용은 대상/물체 사이이니 ㉠밧게, ㉢바투

단어 뜻 적용하면

같은 단어, 같은 품사

㉡에 들어갈 내용은 시간/공간 사이이니 ㉡밧게

정답 5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익숙한 문법 문제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 문제도 당연히 있죠.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4.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하게 ㉡ 실천하기 ㉢ 원한다면 제대로 ㉣ 된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위의 문제는 전형적인 내신 수준, 개념 적용, 문법문제이지만, 변별력, 난이도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평가원에서 수험생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 확인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앞의 두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알고 있다고 전제한 것은 모두 대부분은 중등,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봐야 고1~3 문법/언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이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잘못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 추후 제공되는 교재/수업/자료를 활용 바랍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풀이과정1>

1. 문제읽기
2. 보기읽기
3. 개념/적용파악하기

안은문장, 안긴문장 구조 분석 및 문장 안에서의 역할 파악이 출제 의도이고, 개념 적용 수준으로 보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풀이과정2>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앞 내용 모두 동일, 판단 필요 없고,

즉, 밑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관형어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내신 수준의 개념 적용문제.

주기적으로 / 운동하기가 / ㉠ 건강의 첫걸음이다.

Ad S V

‘운동하기’ = 주어 역할 정답!

(그것을 / 꾸준히 / ㉡ 실천하기 /) ㉢ 원한다면

(O / Ad / V) = (O) V

격조사 붙이면 그 역할을 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명사‘절’은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 명사절 = 목적어 기능합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면

기초 개념의 부재인데요!

‘서술어’가 문장성분의 ‘격’, 서술어 자릿수, 문장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술어에 주목해야만 하고,

이미 기출로 확인 되듯이

서술어 하나 = 절 하나

로 처리합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풀이과정3>

제대로 ㉠된 /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V S V

혹시나 이 부분 약한 학생들을 위해 개념 설명을 덧붙이면. (국립국어원 출처)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를 뜻합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조사 ‘이’, ‘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말하므로 ‘물이 얼음이 되다’에서 ‘얼음이’는 보어로 봅니다. 그러나 ‘물이 얼음으로 되다’의 경우 부사격조사 ‘으로’가 쓰였으므로 보어가 아닌 부사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어의 범주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교과서나 교재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르시길 권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 1.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본다
- 2. 주어가 생략되었는지, 주어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를 통해 보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 경우에는

‘되다’이므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S / V

애도 서술어.

궁금한 학생을 위해 좀 더 풀어쓰면,

계획/세우기가 / ㉡선행/되어야/한다.

(O/V)=S / (C/V/aux)= V

계획을 세우다 = 목적어 + 서술어

그런데 그것이 다시 주어 역할을 합니다.

/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다 = 보어 + 서술어

되어야 + 한다 = 본용언 + 보조용언

결국 서술어 역할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깊게 안 가도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어 문법 보다는 영어 문법에서 명료하게 배웁니다.

다만, 부족함이 느껴져 명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드는 경우는 후속 보충 강의와 자료를 활용바랍니다.

이쯤에서 정리하는 내신 출제 포인트*

<일반계고>

- 1. 일반계고의 내신 수준과 출제 경향은 방금 풀어본 문제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2. 다만, 혹시나 변별을 위한다면,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풀이과정3>

차원의 분석까지 판단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 족보 분석을 통해, 필요시 어느정도 깊이의 학습이 필요한지 판단 후

- 3. 수강생들은 이와 관련한 자료/교재/보충영상은 요청 해주시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구실로 요청바랍니다.

<특목 및 내신이 강한 학교 기준>

1. 이 경우는 결국 선생님의 재량입니다.
2. 국립국어원 답변에서도 보이듯, 학자의 견해, 그에 따른 대학에서의 학습, 그에 따른, 교과서 및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 경우는 전체 개념의 틀을 평가원 견해에서 확립
4. 평가원이 생각하는 킬러 문항의 특징 확립
5. 이후 내신 학교 특색에 맞게, 학교 수업 필기 및 예복습에 이어지는 반복 숙달 암기가 필수로 필요하며,
6. 학교 수업 부교재 수준의 깊이있는 개념 학습 및 적용교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학습을 해야하다보니 부담을 갖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과목대비 가장 변화가 빠르고, 성적 변화도 빠른 과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오히려 하던 대로 해서 가장 변화가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기준으로 4~6등급 학생들이 12주 과정 결과 1~2등급으로 넘어갈 확률이 60%에 이릅니다.

앞으로의 수업과 교재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중세국어 문제 역시 내신/사설에서 오염되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9개념 외에는 없습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의’ 등이 쓰인다.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ㅅ’이 쓰인다.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의 ㉠~㉥에 채워 보자.

선행 체언	아버님 (아버님)	그럭 (기러기)	아들 (아들)	수플 (수플)	등 잔 (등잔)
후행 체언	결 (결)	목 (목)	나ㅎ (나이)	가온더 (가운데)	기름 (기름)
적용 모습	㉠	㉡	㉢	㉣	㉤

- ① ㉠ : 아버니(아버님+의) 결
- ② ㉡ : 그럭(그럭+의) 목
- ③ ㉢ : 아드(아들+의) 나ㅎ
- ④ ㉣ : 수플(수플+ㅅ) 가온더
- ⑤ ㉤ : 등잔(등잔+ㅅ) 기름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개념은 관형격 조사. 다양한 형태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의’ 등이 쓰인다.

체언이 유정물/무정물일 때의 차이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ㅅ’이 쓰인다.

높임에 따른 차이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의 ㉠~㉥에 채워 보자.

선행 체언	아버님 (아버님)	그럭 (기러기)	아들 (아들)	수플 (수플)	등 잔 (등잔)
후행 체언	결 (결)	목 (목)	나ㅎ (나이)	가온더 (가운데)	기름 (기름)
적용 모습	㉠	㉡	㉢	㉣	㉤

결국 출제의도는

중세국어 지식이 아닌,

1. 선행 체언의 유정물과 무정물 구분
2. 높임

선행 체언	아버님 (아버님)	그럭 (기러기)	아들 (아들)	수풀 (수풀)	등잔 (등잔)
유정/무정	유	유	유	무	무
존칭	ㅇ	ㅅ	ㅅ	ㅅ	ㅅ
결론	ㅅ	의	의	ㅅ	ㅅ
후행 체언	결 (결)	목 (목)	나흐 (나이)	가온더 (가운데)	기름 (기름)
적용 모습	㉠	㉡	㉢	㉣	㉤

① ㉠ : 아버니피(아버님+의) 결

정답 1번 끝. 나 아닌 시

잠시 여기서...

나머지 선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설명 드리면,

우선 평가원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음 조화라는 현상.

동시에

국어사-중세국어 공부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양성모음	· (아래 아)	ㅏ	ㅑ	ㅓㅕ	...
음성모음	—	ㅓ	ㅕ	ㅓㅕ	...
중성모음					...

위와 같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다

깨지게 된 이유는?

· 소실되면서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럭>기러기

‘ㄱ’ 음성모음

아들>아들

‘·’ 양성모음

즉, 혹시나 양성/음성 모음 구분에서 틀렸다면

그 역시도 기초적인 문법지식인

모음조화표 + 적용 차원입니다.

심화개념 암기.

대단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② ㉡ : 그럭(그럭+의) 목

음성모음으로 끝났으니 ‘의’

③ ㉢ : 아드러(아들+의) 나흐

양성모음으로 끝났으니 ‘의’

④ ㉣ : 수풀(수풀+ㅅ) 가운데

⑤ ㉤ : 등잔(등잔+ㅅ) 기름

왼쪽 위의 표에 따라 ㅅ

누가봐도 중세국어 지식은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아래 수준입니다.

- ① 소실된 음운 : ㅍ(순경음 비음), ㅌ(반치음), ㅍ(여린 히읗), ㅇ(꼭지 이음), · (아래 아)
ㅍ -> ㅍ, 모음, 소실
ㅌ -> ㅌ, 모음, 소실
ㅍ, ㅇ -> 모음, 소실
· -> ㅏ / ㅑ
- ② 어두자음군
- ③ 모음조화
- ④ 이어적기(연철) => 거듭적기(중철)
- ⑤ 주격조사 |, 이 + 가
- ⑥ 1인칭 선어말 어미 -오-
- ⑦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 -샤-
- ⑧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
- ⑨ 어휘 변화, 의미의 축소, 이동, 확대

내신/사설 그리고 수능을 명확히 구분해주세요.

14~21 평가원 기출에서 위의 개념을 넘는 문제는 출제 ‘0%’입니다

제가 저렇게 말씀드려도 몇몇 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시험과
내신/사설은 다른 성격의 시험이라 보셔야 합니다.

14~21 기출 다시 전체 분석,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교재에서도 보여드리다시피.
위의 개념 외에는 암기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문법교육,
국어사 학습 조차도,
'논리적 사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급격히 어려워졌던 2017학년도 독서 오답률 다
누르고 오답률 1등했던 그 문제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13번] 오답률 TOP 1 (정답률 29%)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ㄱ[중세 국어] 큰 믰스물 여러
 ㄴ[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ㄷ[중세 국어] 自然히 믰스미 여러
 ㄹ[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 ㄱ[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흐터
 ㄴ[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ㄷ[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믰스미라
 ㄹ[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2019수능 15번, 바투-밭게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중세국어 암기를 묻는 것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쯤 정리해드리는

현 수능 국어 문법 킬러의 특징과
문법 학습의 방향성

평가원의 의도

문법 교육의 목표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따라서

1. 평가원이 생각하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 범위 확립
 2.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법 지식 체계 확립
 3. 평가원이 생각하는 킬러-논리적 사고의 본질
- 학습이 여러분의 문법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해결 과정입니다.

다음 보기를 통해 평가원 의도 파악 연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p> <p>①와 ②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p> <p>① [중세 국어] 큰 믰스물 <u>열</u>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u>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믰스미 <u>열</u>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u>리어</p> <p>② [중세 국어] 번게 구르물 <u>홀</u>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u>어 [중세 국어] 散心은 <u>홀</u>튼 믰스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u>어진 마음이다.</p> <p>탐구 결과 : ①와 ②를 보니, <u>(가)</u></p>	<p>전제1. 동사의 품사 구분</p> <p>전제2. 자동사vs타동사 위와 같이 논리적 사고를 위한 전제 세팅을 한 뒤에</p> <p>중세국어 vs 현대국어 사례 비교를 통한</p> <p>연역-귀납적 논리 사고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결론. 까지</p>
---	---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

사동/피동 개념에 대해 정확히 처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 출제의도가 안 보이고, 결국 오답으로 직행합니다.

사동 피동은

1. 접미사 파생
 2. 장형 사동 / 피동의 결과
- 로 이루어지는데

'파생'이라 함은 다른 단어,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현대국어의 열어 / 열리어는 다른 단어
중세국어의 열러 / 여러는 같은 단어

결국,

현대국어 열어는 - 마음을 열어 - 타동사로만
중세국어 여리는 현대국어와의 비교 추론을 통해

- ㉠ [중세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마음^이 열^리어
-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목적어 임을 판단할 수 있는 목적격 조사 ‘을’
주어 임을 판단할 수 있는 주격 조사 ‘이’
와 함께 쓰였으니
S(주어) + O(목적어) + 타동사
S(주어) + 자동사
둘 다로 쓰입니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이 문항이, 수능이 급격히 어려워졌던 2017학년도 독서
오답률 다 누르고 오답률 1등 했던 그 문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사설에서의 변별력 확보는
지엽적이고 애매한 개념 암기에서

수능에서의 변별력 확보는
이렇게 평가원 의도 파악에서 시작하는
논리적 사고에서 이루어집니다.

21학년도 6평 마지막 독서 통합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관련되는 대표 2지문 먼저 풀이 ㄱ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 *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에서/에서, 인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서/에서, 인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셔/에서/에서, 인셔/의셔’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애셔/에서/에서, 인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끼셔’ 역시 ‘끼’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끼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인/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현대 국어의 예</td>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중세 국어의 예</td>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씨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td> </tr> </table>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씨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씨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 ① ㉠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 :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씨셔’가 붙었군.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점-'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ㅈ'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 '도와', '더버'도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ㅈ' 앞에서는 반모음 'ㅁ / ㅌ [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 '도오시니', '셔볼'도 '셔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ㅇ'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도 '아으', '저서'도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ㅈ'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운
② (선을) 굶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운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있다.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 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 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 ①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 ③ ㉢, ㉣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 ⑤ ㉦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우리는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학계 내부 사정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안다면, 출제자와 소통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쉬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피서' 역시 '피'와 '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 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피서',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위 지문을 근거로 아래의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의 예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피서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① ㉠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대신 1.초반 등급을 찍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위의 선지 판단을 정확히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1~10번 - 화법 작문
- 11~15번 - 문법
- 15문항 - 문학
- 15문항 - 독서

라는 틀만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도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이며,

이러한 평가원 오피셜 근거 지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접근 틀은 가장 강력한 논리적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접근>

지문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라고 했으니,

- ①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겠군
- ② ①의 경우 N+'에서' 형태로 쓰일 때, 공간/집단 명사, 무정명사만 오겠군.

그렇다면?

-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①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군
- ② ①의 경우 N+'에서' 형태로 쓰일 때, 공간/집단 명사, 무정명사만 왔군!

그렇다면?

- ① ㉠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선지는 괜찮군!

P : 잘못된 접근

C : 문법 문제를 독서 문제로 오인

S :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로

위 지문을 근거로 아래의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올바른 접근>

㉠ 그 지역에서 공통 화석이 발견되었다.

㉠ ㉠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문법 교육 목표에 따라서

- ① 기초적인 문법 지식 바탕
- ② 탐구학습 통해
- ③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

㉠ ㉠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① 기초적인 문법 지식 바탕

㉠ 그 지역에서 / 공통 화석이 / 발견되었다.1)

Ad / S / V

결론 : 주격조사가 아니군. 정답 1번 가능성 높게 판단하면서 지문 분석 가야겠군.

1) 참고로, 위의 문장 분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되다'앞에 '이/가' 보격 조사가 붙어 '보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그 지역에서 / 공통 화석이 / 발견되었다.

Ad / S / V

와 같은 문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가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 그 지역에서 / 공통 화석이 / 발견되었다.

S / C / V

좋은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익숙한 가장 깔끔한 설명은,

'되다'는 접사로, 피동 파생 접사/형용사 파생 접사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발견되다는 하나의 동사/용언/서술어가 됩니다. 발견 대상은 '공통 화석'이고, 피동이니, 주어 역할을 해야겠죠.

하지만, 위의 설명이 좋지 않은 설명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암기'수준이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넘어, 사전을 통째로 암기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범위도 넘고, 실전적용은 당연히 불가, 평가원의 문법 교육 목표도 아닙니다. 이대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문법 공부, 성장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 ① 독서 문제가 아닌 문법 문제이고
- ② 문법 교육의 목표에 따라, 먼저, 기초적인 문법 지식 적용이 우선이며
- ③ 독서 통합형 문제는 탐구학습과 논리적 사고 과정의 소재일 뿐.

독서 통합형 접근법

- ① 기초적인 문법 지식 적용
- ② 판단에 부족한 정보 파악 + 독서 접근법에 따른 지문 분석
- ③ ②의 과정에서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판단 위의 접근법 그대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우선 독서 접근틀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수업/자료/교재를 통해 잡혀있다는 전제로 진행하며, 잡혀있지 않은 경우는 꼭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설명이 익숙치 않다면, 21페이지로 가시길 바라며, 상당히 고위험군이라는 자가진단 바랍니다.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적용해봅시다.

- ① 문장안에서의 역할 = 문장 성분
- ② 문장 성분 판단 = 서술어와의 관계 파악 or 격조사

㉠ 그 지역에서 공통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발견'만 떼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격조사를 붙여보면?

발견'이' 되다.

아. 일종의 '보어'같은 성격이 될 수 있구나!

그 지역'에서'는 바꿀 수가 없네?

부사어구나!

이러한 사고 판단의 근거는 100% 완벽할 수 없지만, '국어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가'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1단락 주제+구조를 봅니다.

Q1 에 vs 에서

Q2 '에서' 주격조사

역시 1단락에서 2개의 주제 세팅을 했고, 본문 구조 역시 2개로 나뉩니다.

Q1-A1 2~3단락 Q2-A2 4~5단락. 구조 흐름을 정리하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Q1 에 vs에서 차이? Q2 '에서' 주격조사?</p>	
<p>2 정보구조 = 표 그리기 의미차이</p>	<p>2~3단락 정보군집 11번 4~5단락 정보군집 12번</p>
<p>3 정보구조 = 인과 중세국어 학습 목표* C : 이시다 > 있다 E : 공간의미</p>	<p>Q1 에 vs에서 차이? A1 아래 표 참고 Q2 '에서'가 주격조사? A2 특정조건 하에서</p>
<p>4 구조 = 인과 원리 + 예시 C : 중세국어 '에서' 표현 E : 중세국어 주격조사 가능</p>	
<p>5 문법 : '에서' 주격조사 조건 예시 적용</p>	

	에	에서
공통점	장소의 의미	
의미자질	+지점	+공간
차이점 원인	C : 이셔(중세) > 서(현대) (+공간 의미)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들은 차이 없이 쓰임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에서/예셔, 인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서/예셔, 인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Q 학교문법에서 중세국어 학습목표는?

A 현대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2016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문법교육론 전공수업'

중세국어 학습목표를, 조상의 얼... 이런 거로 가면 역시나 정말 예전 접근법입니다.

현대 문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언어의 특성, 즉 역사성에 따라 논리적 설명이 가능했고, 중세국어는 그러한 맥락과 목적에서 학습됩니다.

위의 내용은 평가원 기출에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추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4~5단락 정보군집 처리합니다.

한편, '에서/에서/에서, 의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의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일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피서' 역시 '피'와 '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 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피서',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이렇게 처리된 주제+구조를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에	에서
공통점	장소의 의미	
의미자질	+지점	+공간
차이점 원인	C : 이서(중세) > 서(현대) (+공간 의미)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들은 차이 없이 쓰임	

1번 정답 끝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에'는 '의/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서'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p>현대 국어의 예</p> <p>㉠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p> <p>㉡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p> <p>㉢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p>
<p>중세 국어의 예</p> <p>㉣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p> <p>㉤ 부터피서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p>

- ①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피서가 붙었군. 이와 서회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듯 정답 1번 끝.

황당할 정도로 처리가 쉬웠던 문항이지만,

평가원의 문항 설계 이해가 없이 접근했다면,

시간, 정답률, 멘탈, 모두에서 터질 수 밖에 없었던 문항입니다.

비슷한 유형에 대한 연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고.

Q 학교문법에서 중세국어 학습목표는?

A 현대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2016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문법교육론 전공수업'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르'로 끝나는 명사 '발', '술', '이틀'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르'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12~13 독서 통합형 문법 지문 1단락

우선, 앞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잡히는 이유는
평가원이 문법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잡고있질 못해서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피셜
학교 문법을 만드는 교수님들 피셜

문법 교육의 목표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① 학습할 것 : 기초적인 문법 지식
 ② 학습 방법 : 탐구학습
 ③ 학습 목표 : 논리적 사고력

우리는?

①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초 개념은 물론
 ② 이면적으로 묻는 출제 의도, 개념 파악
 ③ 출제의도 파악 = 논리적 사고 접근 연습

평소엔?

① 14~21 기출 철저 분석, 필요한 개념 범위 명확히 인식
 ② 필요한 개념 간의 위계 정립
 ③ 필요한 개념의 기출 문항 적용 양상 분석
 ④ 실전/기타 문항들에 적용.
 시중 문항에서 보이는 특이사항은 배인호 선생님과 항상 질답 정리
 기출은 예외 없음!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안다면,

- ① 독서로 얻어지는 정보는 내용과 구조에 대한 처리와
- ② 문법문제는 기초지식-탐구학습-논리적 사고 흐름

그렇다면,

먼저 문제부터 처리하여

- ② 문법문제는 기초지식

를 마무리하고

- ① 독서로 얻어지는 정보는 내용과 구조에 대한 처리와

- ② 문법문제는 탐구학습-논리적 사고 흐름

을 위한 수단으로 독서 지문을 써야합니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
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
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예시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정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1)(2)(3)괄호의 비교인데,

Q1. 에 vs 에서의 쓰임 차이

Q2.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임

이렇게 주제 세팅을 했고

실제로 나머지 2~3단락은 Q1. 에 vs 에서의 쓰임 차이

4~5단락은 Q2.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임

에 대한 정보군집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
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
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
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
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
(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
서 ‘애셔/에셔/예셔, 인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
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셔/예셔, 인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
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
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줄글로 나오면 어떤 학생들은 정신을 못차립니다.

여러분

‘독서’에 대한 정의를 해보십시오.

독서 : 책 읽는 것

이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이야 매체가 ‘책’ ‘문자로 표현된 text’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즉, 이미 매체도 다양할 뿐 아니라

국어영역에서 의미하는 정보처리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모든 정보를 포괄합니다.

단지 우리의 관습이 ‘책 읽기’

더 이상 우리가 책에서 정보를 얻나요?

당연히 그 이상의 정보처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표 그리세요.

지문과 표를 비교해가며 정보처리 해보세요.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에서/예셔, 인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서/예셔, 인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에	에서
공통점	장소의 의미	
의미자질	+지점	+공간
차이점 원인	C : 이셔(중세) > 서(현대) (+공간 의미)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둘은 차이 없이 쓰임	

네.

지문에서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정보 처리가 말씀해줍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더 많은 모든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 있으나.

- ① 80분 시간 안에 가능한 방법인지?
- ② 평소에 우리가 정보처리 그렇게 하는지?
- ③ 애초에 수능 국어 지문의 정보가 논리적 완결성을 완벽히 가지고 있는지?

이러면 11번 답은 끝났습니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에	에서
공통점	장소의 의미	
의미자질	+지점	+공간
차이점 원인	C : 이서(중세) > 서(현대) (+공간 의미)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들은 차이 없이 쓰임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의/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서'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2~3단락 읽고 바로 11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문제를 분석하고 지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11번 문항에 충분한 정보처리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지금처럼 중간에 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법'문항이기 때문에 하는 접근이지 나머지 파트에서의 접근은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한편, '에서/에서/에서, 의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의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피서' 역시 '피'와 '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 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피서',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더 읽어보셔도 별 내용 없고,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12번에서 처리한 기초 개념에 따라,

지문에 추가 변동 정보 없으므로 1번 선지. 정답 끝.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p>현대 국어의 예</p> <p>㉠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p> <p>중세 국어의 예</p> <p>㉣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피서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p>

- ①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피서가 붙었군. 이와 사회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이어지는 2017학년도 문항 역시 같은 접근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ㅈ'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ㅍ' / ㅌ[w]로 바뀌었고, '도블시니'도오시니, '셔블'셔울'에서와 같이 'ㅅ' 또는 'ㅈ'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ㅅ'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11번]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2017학년도 6월 12번]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 -어	-은/ -은	-게	-아/ -어	-은/ -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신을) 굶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문법. 아래와 같은 접근!

평가원 피설
학교 문법을 만드는 교수님들 피설

문법 교육의 목표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① 학습할 것 : 기초적인 문법 지식
 ② 학습 방법 : 탐구학습
 ③ 학습 목표 : 논리적 사고력

우리는?

①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초 개념은 물론
 ② 이면적으로 묻는 출제 의도, 개념 파악
 ③ 출제의도 파악 = 논리적 사고 접근 연습

평소엔?

① 14~21 기출 철저 분석. 필요한 개념 범위 명확히 인식
 ② 필요한 개념 간의 위계 정립
 ③ 필요한 개념의 기출 문항 적용 양상 분석
 ④ 실전/기라 문항들에 적용.
 시중 문항에서 보이는 특이사항은 배인호 선생님과 항상 질답 정리
 기출은 예외 없음!

독서 통합형 지문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원칙 다시 세웁니다.

독서 통합형 문법 문항 접근 절차

1. 문항 분석
 2. 문항에 적용된 기초 개념 분석
 3. 문항 접근을 위해 출제의도/설계 분석
 4. 논리적 사고
 5. 지문은 독서구조 분석 + 문법 문제 풀이 목적 독서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11번]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일단 맞아 보입니다. 기초 개념. 어간의 형태/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면 불규칙 활용이라는 기초 개념이 잡혀 있으면 확신 있게, 관촬음 판단!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답 바로 나오네요.

순경음 비읍 ‘빙’이 어간 끝 ‘ㅂ’이면 당연히 ‘돗와’와 같이 ‘ㅂ’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도와’ 어디에도 ‘ㅂ’은 흔적도 없습니다.

바로 정답. 끝.

황당하죠?

그럴 수 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은 문법 문항이지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 문제 접근 베이스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여지는 12번 봅니다. 와/과가 나오면 끝습니다.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2017학년도 6월 12번]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 -어	-은/ -은	-게	-아/ -어	-은/ -은
① (마음이) 곱다	곱게	고하	고본	곱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굿다	굿게	그서	그은	굿게	그서	그은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본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은	빗게	비서	비은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발문 바탕 선지/표를 분석하면, 15세기 기준 그리고 17세기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시 여기서

-게	-아/ -어	-은/ -은	-게	-아/ -어	-은/ -은
----	-----------	-----------	----	-----------	-----------

으로 나뉘니,

이 기준으로 정보도 처리합니다.

이제 지문입니다.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위의 대사에서 수험생들은 모든 정보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정보 처리가 안 됩니다.

주제+구조는 물론

문법 문제이니 문법 개념에 집중하면,

문법 개념체계에 따라,

'활용형이 다르다'가 탐구학습 결과 발생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정보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마찬가지

'활용형이 다르다'가 탐구학습 결과 발생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정보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이제 주제는

Q에 대한 답변 A

E에 대한 원인 C

를 찾아야 합니다.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활용형이 다르다

즉 개념 '불규칙 활용'을 찾아야 하는데,

활용형이 모두 같은, '규칙활용'이니 글의 주제 아닙니다.

정보가치 낮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로 시작하며 역접. 이제 정보가치 높습니다.

역시 우리가 필요로하는 정보 불규칙 활용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합니다.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
돕 (15세기 활용형)	돕- (돕고)	돌- 도바

바로 선지 적용 품니다. 관련 없는 정보 털겠습니다

		15세기 중엽 이전					
		-게	-아/ -어	-은/ -은			
①	(마음이) 굽다	굽게	고바	고본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본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자음 앞에서는 모두 'ㅂ'으로 모음 앞에서는 모두 순경음 비음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 개념 규칙 활용이니 정보가치 낮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저'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 그러나 뒤 정보가치 높고

불규칙 활용.

정리합니다.

표로 정리합니다.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
뚝 (15세기 활용형)	뚝- (뚝고)	뚝- 도뚝
젓 (15세기 활용형)	젓- (젓고)	‘젓-’ (‘저서’)

	15세기 중엽 이전					
	-게	-아/ -어	-은/ -은			
① (마음이) 굽다	굽게	고바	고본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본			
④ (머리를) 빚다	빚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2번 선지는 맞는데,

4번 선지는 자음 어미 앞에서 반치음,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

반대로 나타납니다.

4번 아웃!

이제 필요한 것은? 17세기로 갑니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뚝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뚝’으로 교체되고 ‘ㅅ’이 ‘ㅈ’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뚝’과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원인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 1도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소실되었으니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뚝’도와, ‘더버’더위’에서와 같이 ‘ㅈ’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ㄱ’ / ㄱ[w]로 바뀌었고, ‘도뚝지니’도오지니, ‘저블’서울’에서와 같이 ‘·’ 또는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ㄱ’로 바뀌었으나, 음

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표로 정리 후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실전에는 표 정리 없이 바로 가서도 괜찮습니다.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
뚝 (15세기 활용형)	뚝- (뚝고)	뚝- 도뚝
젓 (15세기 활용형)	젓- (젓고)	‘젓-’ (‘저서’)
	음절 끝	ㅈ/ㅅ ·/—
뚝 (17세기 활용형)	ㅂ	ㅈ/ㅅ ㅂ/ㅅ

이미 4번 선지 아웃. 불 필요 없습니다. 음절 끝, ‘ㅂ’으로 모두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어 앞에서 ㅈ/ㅅ가 되니 와/워가 되어야 하고, 1번 3번 선지 남은 상태

하지만 ·/— 앞에서는 온/운이 되어야 하므로 1번 선지만 남죠!

				17세기 초엽		
				-게	-아/ -어	-은/ -은
① (마음이) 굽다				굽게	고와	고운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워	누운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이제 마지막 1번 선지 2번선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
뚝 (15세기 활용형)	뚝- (뚝고)	뚝- 도뚝
젓 (15세기 활용형)	젓- (젓고)	‘젓-’ (‘저서’)
	음절 끝	ㅈ/ㅅ ·/—
뚝 (17세기 활용형)	ㅂ	ㅈ/ㅅ ㅂ/ㅅ
젓 (17세기 활용형)	ㅅ	소실 소실

				17세기 초엽		
				-게	-아/ -어	-은/ -은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소실되면 음가가 없는, 즉 ‘ㅇ’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ㅅ’이 살아 있으니 2번선지도 아옷.

남는 것은 1번선지 정답!

참고

학교 문법이 적용된 수능 국어 문법은 14이후의 문항 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항 분석 결과

국어사에서 암기해야할 기초 개념은 다음과 9가지입니다. 이 이외는 절대로 암기 상태 묻지 않습니다.

- ① 소실된 음운 : ㅃ(순경음 비읍), ㅆ(반치음), ㅉ(여린 히읗), ㅇ(꼭지 이응), ㆁ(아래 아)
ㅃ -> ㅍ, 모음, 소실
ㅆ -> ㅅ, 모음, 소실
ㅉ, ㅇ -> 모음, 소실
ㆁ -> ㅏ / ㅑ
- ② 어두자음군
- ③ 모음조화
- ④ 이어적기(연철) => 거듭적기(중철)
- ⑤ 주격조사 ㅣ, 이 + 가
- ⑥ 1인칭 선어말 어미 -오-
- ⑦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 -샤-
- ⑧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
- ⑨ 어휘 변화, 의미의 축소, 이동, 확대

소실되는 이유는

음가의 지위가 약해서이고,

이 경우 다른 음가로 이동/흡수 되거나

모음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읽어봐도 하시겠지만 정보처리 의미 없습니다. 즉, 이것이 독서 통합형 문법 문제의 특징입니다.

물론 수학 역시 전형적인 유형이라도 약간의 ‘기출 변형’이 있듯이 국어 역시 기출변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습을 통해

1. 개념 적용
2. 개념 범주 확인
3. 개념의 활용 양상 파악
4. 기출 변형 적용
5. 실전 대응까지

잘 해봅시다.

이어지는 문항.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새로운 출제 교수님 집단이 구성되어 출제된 경우라

약간의 다른 느낌과 동시에 기존 기출 흐름도 존재합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있다.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 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 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 ①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 ③ ㉢, ㉣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 ⑤ ㉦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부터 봅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보기를 보니

① 기초적인 문법지식

즉, ‘지시어’ ‘연결어’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표지’문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파트에서 ‘담화’단원 학습이 소홀하거나,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화용론’이라는 전공 과목은

‘매체’와 같이 가장 최근 연구가 활발해진 전공 영역이고, 그러다보니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평가원 출제 연구 교수님 집단이 출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양상이 바뀝니다.

위의 문제는 그 의도라 보이고,

특히 정보의 내용이 아닌 ‘구조’처리가 미숙한 지금의 문제에,

‘정보의 구조’처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표지’라는 개념에 초점을 둔 측면이 중요합니다.

- ①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응 표현이다.
- ③ ㉢, ㉣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 ⑤ ㉦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문제는, ‘표지’라는 개념자체가 서있지 않으니

예전 독서 통합형 문법 문항처럼 개념만으로 바로 접근 불가. 지문으로 가야합니다.

㉠ “할아버지께서 / 마침 방에 / 계셨구나!
 S / Ad / V
 (OO이가) / 과일 / 좀 드리고 / 오렴.”
 (S) / O / V / V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문장구조 분석. 바로 판단됩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문장구조분석 + 높임의 방법 - 어휘. 판단됩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정보 불충분. 지문에 대한 정보처리가 필요합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문장의 주체는 생략. 정답!

- ⑤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청유문 개념을 알면 바로 판단.

결국 11번 문제에 관련된 정보 처리 독서 시작합니다.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있다.

담화 개념에 대한 교과서 수준의 기초문법지식입니다.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독서 구조는 잡을 수 있는데, 역시 1단락 끝,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으로 지시 집약하며, 글의 주제를 **지시/대용/접속 표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시점,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 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 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역시 2단락 흐름은

- ① 지시표현
- ② 대용표현
- ③ 접속표현

입니다.

지시표현/대용표현의 정의와 예시를 바탕으로,

맥락파악이 핵심이며

이 꽃 예쁘네. : 지시표현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대용표현

지금도 보이시다시피

모든 정보 처리를

같은 가치로

하나 하나 집중해서는

결국 정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 처리는

- ① 내용
- ② 구조
- ③ 가치

로 판단하여

④ 글쓴 사람과 의사소통의 결과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해/적용할 수 있는지의 흐름입니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①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으로 화제 전환 후

이때~ 로 주제 세팅

가령~ 으로 예시로 뒷받침 하였으니 앞 내용이 정보 가치 높아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 어휘력, 배경지식은 필수.

문법 문제이니 문법 개념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Q. 문법요소의 정의와 종류는?

부족한 학생은

개념 보충 강의 / 교재 꼭 신청하여 활용바랍니다.

문법 요소 중 '높임' '종결'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그 두가지 요소로 주제 연결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처리가 마무리 되었고, 문제 적용.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 ①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은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응 표현이다.
- ③ ㉢, ㉣은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이 꽃 예쁘네.” : 지시표현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 대응표
 현

- ⑤ ㉥은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
이다.

대응표현. 정답 5번.

여기까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문법 문항의 특징과
기존 기출 문법 문항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연결고리를 잡았습니다.

곧, 8월 파이널 커리큘럼 시작합니다.

가장 완벽한 수업

가장 완벽한 자료

가장 완벽한 교재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가장 편하게 백분위 100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 ① 기초적인 문법지식 (평가원이 생각하는 시험범위)
- ② 문법지식의 적용 (평이한 평가원/일반적 내신)
- ③ 킬러 유형 (평가원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이렇게 3가지 학습이 앞으로 이어지며

①과 ②과정은 사실 고2 까지 기반학습으로 마무리
그래서 보충 강의와 자료로 제공해드리며,

③은 고3/n수 과정에서 정리할 영역입니다.

파이널에서 확실히 정립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문법 시험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목명 부티가
'문법'이 아닌 '언어와 매체'로 바뀐 이유를 알아야합니
다.

우리는 문법을
법(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법률. 즉,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준칙.

하지만,
문법학자들이 생각하는 문법은

법률. 준칙의 '법'이 아닙니다.

문법 :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또는 그것을 연구
하는 학문.

즉, '각운동량 보존법칙'과 같은
일종의 과학/사회현상,

즉, 언어현상에 대한 '정리' '연구' 정도로 보는 것이 정
확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문법입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의 문맹은 거의 99%에 달했고,
광복 후 당연히 문맹 퇴치가 중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어'과목은 단지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차원
에 머무른 것이 사실입니다.

'문맹'의 문제
그리고 '맞춤법'의 문제
최소 30년은 지난 과거의 문제.

현대 대한민국에 문맹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보처리 문맹, 경제 문맹, 법률 문맹이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살면서 크나 큰 실수,
때로는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사고를 만납니다.

다시.
'문법'에 대한 평가원의 생각을 들여다봅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어 문법 1 國語文法
1. 언어 국어의 문법.
2. 언어 국어의 단어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문장을
이루는 법칙.

즉, 문법이란 문장의 법칙

문장 :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글의 경우,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문장 부호
를 찍는다.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
이다.

즉,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전달 단위. 혹은 체계를
의미하고

결국 문법은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에 관한 정리, 연구
라고 보는 것이

문법학자/문법교육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그 맥락에서 문법은
더 이상 문법이 아닌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장단위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 체계가 완결 될 수 없기 때문에

‘담화’라는 단원이 들어왔으나

그 담화 조차도

‘매체’에 따라 의미 체계가 달라지니
당연히 매체와 언어를 묶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문법 교육의 미래가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급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존의 학교 내신 차원에서의 문법 30%
논리적 사고의 대상으로의 문법 50%
담화-매체와 언어 차원에서의 문법 20%
정도로 비중이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담화-‘매체와 언어’ 영역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결국 ‘논리적 사고’라는 책임을 선언적 과제로 제시하는
문법 교육의 특성상,

전형적인 킬러 유형인 문법을 소재로 한 논리적 사고
유형은 여전히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내용을 걷어내었으나

14~21 기출 전체 분석은 필수이며
이에 따라

‘문법원론’ + ‘인트로’ + ‘적용’ 영상과 교재를 필수적으로
활용하여 정립바랍니다.